

LG CNS “IPO 통해 DX 역량강화·글로벌 시장 선도할 것”

(디지털 전환)

‘1兆’ 대어급 IPO, 3년 만에 나와
내달 상장… 15일까지 수요예측
6000억 투자재원으로 사업 다변화
“경기 영향 크게 받지 않으며 성장”

“LG CNS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올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LG CNS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발판으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DX)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해, 글로벌 DX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겠습니다.”

현신균 LG CNS 최고경영자(CEO)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후 회사의 중장기 성장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이번 LG CNS의 코스피 상장이 짐चे된 공모주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 CNS의 도전은 L



LG CNS CEO 현신균 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LG CNS

G에너지솔루션 이후 3년 만에 공모 규모 1조원 이상인 ‘대어(大魚)’급 IPO이기도 하다.

LG CNS는 LG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로, 지난해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다음달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다. 기관 수요예측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이고, 일반 청약은 21~22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KB증권,뱅크오브아메리카(BoA),모건스탠리 3개다.

LG CNS가 공모하는 주식 수는 1937만7190주이며 희망 공모금액은 1주당 5만3700~6만1900원이다. 계획대

로 상장이 진행되면 LG CNS의 시가총액은 5조2000억~6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번 IPO에서 LG CNS는 주당 평균가액 8만9378원에 3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했다.

LG CNS는 전체매출(2023년 5조6053억원)의 59.8%가량이 LG그룹 내 거래로 이뤄져 왔다. 현재는 생성AI, 클라우드 관리형 서비스(MSP), 물류자동화, 금융DX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중 AI·클라우드 분야는 2021~2023년 연평균 24.2% 성장해, 회사 전체 매출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 현 사장은 “향후 주가가 PER의 22~25배까지 높아지고, 단기순이익 기준 매년 10%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진헌 LG CNS 전략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DX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가 좋을 때에는 IT 수요가 늘어나고, 불황일 때에는 DX가 비용 절감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LG

CNS의 사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번 IPO로 6000억원가량의 투자재원을 모아 인공지능(AI)·클라우드·스마트팩토리 등에 투자해, 사업을 다변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끝으로 IPO 기자간담회 전날까지도 싱가포르 투자자들과 만남 가졌다는 현 사장은 “(최근) 안 좋은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우려한 것보다 한국의 상황에 대한 질문보다 LG CNS의 본질에 대해 묻는 투자자가 많았다”며 “LG CNS의 상장 성공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혹, 수요예측이 잘 안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상장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분위기 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밸류업, 체감효과 미미… 정책지원 필요”

공시 기업 63%, 시총 1兆 ‘대형사’ 거대소 “중소 컨설팅·세제지원 노력”
주주환원 기업에 인센티브 등 제공해야

지난해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코스피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다만 대형사와 일부 금융주에 편중된 참여 구조와 형식적인 공시로 인해 실질적인 밸류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코스피는 85개사, 코스닥은 17개사가 밸류업 공시(분공시·예비공시 합계)를 해 코스피 대비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밸류업 공시기업(102사) 중 시총 1조원 이상 기업 비중이 63%(64개사)에 달할 정도로 대형사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에 나섰다.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41%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밸류업 공시에 나선 데 반해 코스닥에서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의 시총 비중은 2%에 그쳤다.

지난해 밸류업 분공시 기업의 연초 대비 평균 수익률은 3.2%를 기록했다.

특히 코스피 분공시 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4.9% 상승, 코스피 지수 수익률(-9.6%)을 크게 웃돌았다.

코스닥 분공시기업의 경우 주가수익률이 -9.4%로 코스닥지수 수익률(-2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주주환원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6000억원 증가,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사주 소각도 1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났다.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금액 역시 4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2년 차를 맞아 상장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 상장기업 대상 공시 컨설팅 강화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102개사는 전체 상장사(2750개사)의 3.71%에 불과하고 자사주 매입 역시 삼성전자, 고려아연 등 소수 대형 기업

에 집중된 데다 매입된 자사주가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가 상승효과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는 나름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했다”라면서 “고려아연, 두산밥캣, 이수페타시스 등과 같은 일부 사례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당과 관련된 분리 과세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들이 이들에게 부여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올해 속도감 있게 추진돼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지난해 ETF 수익률·점유율 ‘쑥’

지난해 21개 신규상품으로 ‘성장세’

상장지수펀드(ETF)상품에 대한 투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상장 ETF 중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의 ETF 수익률과 점유율 상승세가 국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 중 지난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로 집계됐다. 해당 ETF는 최근 6개월간 42.91%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24년 1년간 197.07%에 달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 외에도 ▲ACE 미국주식 베스트셀러 ETF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가 각각 84.02%, 82.06%로 2024년 연간 수익률 10위권 내 안착했다.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에 3개 이상의 상품을 올린 것은 한투운용이 유일했다.

아울러 ETF 시장에서 ACE ETF의 점유율 상승세도 국내에서 ETF 사업을 영위 중인 26개 운용사 중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ACE ETF의 시장 내 점유율은 지난 2023년 말 4.92%에서 2024



년 말 7.56%로 2.64%포인트 증가했다. 순자산액 또한 2023년 말 5조7014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1256억원으로 130.22% 증가했다.

한투운용 측은 “ACE ETF의 성장세는 적극적인 신규 상품 출시 덕분으로 풀이된다”며 “한투운용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21개의 신규 상품을 선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투운용이 ETF 상품으로 처음 출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연간 상장 건수다. 21개 상품 중에는 국내 최초 테일리옵션을 활용한 커버드 ETF 3종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 상품이 보인 우수한 성과에 신규 상품 공급이 더해지며 개인투자자 순매수 또한 지속 유입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ETF로 지난 한 해 동안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2조7645억원으로, 이는 2024년 국내 상장 ETF 전체 개인순매수액 중 14%에 달한다. /허정윤 기자

신한 마음편한TDF 시리즈, 수탁고 1兆 돌파

신한자산운용 “우수한 성과 요인”
3년 성과서 수익률 1위 유지

신한자산운용의 ‘신한 마음편한TDF’가 2017년 이후 8년간 검증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된 성과로 수탁고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자사의 신한 마음편한·장기성장 TDF 시리즈가 수탁고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출시 이후 8년 동안 안정적인 운

용능력을 입증한 업계의 대표적인 스타 디젤러 TDF로 자리잡고 있다.

신한자산운용 TDF시리즈는 지난해 1800억원이상의 순증을 보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 유입의 가장 큰 요인으로 우수한 성과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장기운용능력을 아우르는 성과지표인 3년 성과에서 1위를 유지 중이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연금투자자의 핵심인 30대, 40대가 주로 가입

하는 신한 마음편한TDF (2045, 2050) 3년 수익률이 각각 15.63%, 16.73%로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지난 1월3일 기준, 1000억원이상 동일 유형펀드 기준)

신한자산운용 TDF의 우수한 성과 요인으로는 오픈유니버스로 자사 상품 위주가 아닌 전 세계 우수한 다양한 상품에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는 전략과 적극적인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한 단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해외주식에 대해 환오픈 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환헤지 비중을 조정하는 유연한 환율전략을 꼽는다. /허정윤 기자

한투증권, 해외 대학생 대상 채용설명회

‘KIS 챗 인 서울’ 진행

한국투자증권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해외 대학교 재학생 대상 채용설명회 ‘KIS 챗 인 서울(KIS Chat in Seoul)’을 진행했다.

9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채용설명회는 방향을 맞이해 귀국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증권업 및 한국투자자금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8

일 마련됐다. 해외 현지 한인 학생회를 통해 소식을 접한 해외대 재학생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사업, IB(기업금융),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운용, 리서치, PB, 디지털 등 직무별 역할과 업무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직무 설명회가 진행됐다. 직무별 현직자를 직접 만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상담부스도 운영했다. /허정윤 기자